

# 발목인 원전 지원금 119억원

## 영광군-원전 갈등에 주민숙원사업 집행못해

### 성산리~가마미 도로 개설사업 등 31건 방치

원자력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책정된 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영광 원자력발전소와 영광군의 출다 리기로 집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영광원자력본부는 올해 영광군 성산리~가마미 간 도로 개설 사업을 포함, 사업자 지원사업 31건 119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원자력본부가 지역지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부군수가 위원장인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영광군은 성산

리~가마미 도로 개설 사업의 재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계획안의 안전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 사업이 발전소 건설로 폐쇄됐던 도로를 복구하는 것이고 도로가 발전소 부지 내부에 있는 만큼 지원 사업비 대신 원자력 본부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자력본부는 지역 숙원사업인데다 도로 개통시 주민들도 통행 편의를 누리게 돼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책정됐던 사업자지원사업비 가

운데 영광을 동돌리 썬지공민 먹을거리 조성 사업 등 58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지원사업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 시행하자"며 사안별 분리 집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사업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며 "영광 원전 임의로 일부 사업을 먼저 시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멸치 수족관 참 신기하네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에 위치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관에 최근 국내 최초로 멸치 수족관이 설치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가로 5.5m, 높이·폭 1.2m의 멸치 수족관에는 1만여 마리의 살아있는 멸치가 들어있어 생생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장흥토요시장 한우 '인기'

"장흥토요시장에 가서 쇠고기 맛보자"

장남진 장흥 토요시장에 개설된 한우고기 판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 품질 좋고 가격 저렴 새로운 명물로 부상

이곳에서는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600g 1근당 꽃등심 1만4천원, 안심·갈비 1만3천원, 양지·사태·목살 등을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인근 식당에서 1근에 6천원만

내면 상추 및 양념이 제공돼 직접 현장에서 구워 먹을 수 있다.

현재 하루 최고 10마리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질 좋고 값싼 쇠고기 구입을 위해 줄을 서야 하는 등 오후 2시 이전에 매진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장흥군은 앞으로 판매점포를 늘리고 시장내에 한우 관련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여수 해양공원에 하멜동상 세운다

여수에 하멜동상이 세워진 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지난 16일 네덜란드 한스 하인스 브룩 대사와의 오찬에서 "오는 10월5일 네덜란드 호르콥시 관계자들이 여수를 방문, 여수시 해양공원에 하멜동상을 세우기로 했다"며 "여수시는 동상을 중심으로 인근에 해양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653년 폭풍을 만나 제주도도 상륙했던 하멜 일행은 강진을 거쳐 1662년 여수 전라도수영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멜일행은 여수 생활 4년 만인 1666년 배를 타고 일본으로 탈출했으며 고국으로 돌아가 난파사실과 한국 생활을 적은 '하멜 표류기'를 펴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해수 풀장 물놀이 인파

연일 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보성군 회천면 '해수욕장 휴양타운'에는 전국 각지에서 피서객들이 대거 몰려 물놀이를 즐겼다.

/보성=인규기자 giahn@

### 여수산단에 친환경 클리닝 공장

#### 블리스 E&E(주), 1천억 투입 2009년 건립

여수국가산단내에 1천억원이 투자되는 친환경 클리닝 공장이 오는 2009년까지 건립된다.

블리스 E&E(주)는 여수산단 연안단지내 부지에 올해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로 1천억원을 투입, 친환경 클리

닝 세정액 공장과 클리닝 작업후 발생하는 슬러지 재처리용 기계제조 공장을 건립한다.

오현섭 여수시장과 블리스E&E(주) 서덕동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친환경 클리

닝 세정액 및 슬러지 재처리 기계제조공장을 건립하는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친환경 클리닝 제조공장이 건립되면 기존 수작업으로 30~40일 소요되던 탱크 클리닝이 친환경 세정액의 개발에 따라 단 5~6일로 단축된다.

블리스 E&E(주)는 클리닝 사업외에도 친환경 세정액을 활용한 일반 공단의 온라인 및 파이프라인 세정과 폐수처리 관리, 골프장, 공원, 호수 등의 정화작업, 친환경 비료, 농약을 생산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강진 초등생 15% 통학구역 위반

### 읍내 학교 다니러 109명은 위장 전입도

강진지역 초등학생의 15%가 통학구역(通學區域)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교육청이 최근 관내 전 학교 재학생의 거주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앙초교, 동초교 등 7개교에서 284명(15%)이 통학구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초교의 경우 전체 학생 1천106명 중 18%인 201명이 통학구역을 위반했으며 동초교는 348명 중 67명(19%)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진읍내에 있는 이들 학교를 다니기 위해 인근 군동면 지역 학생 109명이 위장전입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군동면 계산초교의 경우 전체 학생 수가 70명에 불과한 미니학교로 전락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이 같은 특정학교 선호 현상은 오랜 전통을 가진 읍지역 학교를 보내려는 일부 학부모들의 과욕이 빚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학생이 편중된 중앙초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30~35명으로 타 학교 20명선에 비해 훨씬 많은데다 교실과 특별학급실 부족 등 오히려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강진교육청은 통학구역 위반 사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해당 가정에 최근 공문을 보내 다음달 5일까지 전학할 것을 촉구했다.

강진교육청은 전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 실정법 위반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어서 무더기 사법처리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무안 소나무 고사 재선충 병 아니다

### 왕바구미 등 해충 때문

무안군 동탄면 다산리 지역의 소나무 고사 원인은 해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동탄면 다산리에서 발견된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원인 조사를 벌인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진기추)는 소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재선충 병이 아닌 솔껍질까지벌레, 왕바구미, 소나무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산림항공관리소는 동탄면 다산리 뒷산에서 말라죽은 소나무 10여 그루 가운데 2그루의 시료를 채취해 전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정밀검사 결과가 소나무 고사목은 왕바구미 및 소나무좀 때문에 고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소나무는 솔껍질까지벌레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김한범기자 hnkim@

## "더위요? 봉사활동으로 잊지요"

### 광양제철 1,800여명 나눔의 토요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직원과 가족 1천800여명이 지난 18일 폭염 속에서도 '나눔의 토요일' 봉사활동을 펼쳤다.

선강정보부와 화성부 직원 150여명은 광양시 진상면 어



광양제철 임직원들이 나눔의 토요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치 계곡과 백운산 계곡 등 피서 인파로 붐빈 주요 행사장에서 오물을 수거했다.

이들은 또 불법 쓰레기 투기 및 무질서 행위를 막기 위한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도 벌였다.

압연정보부 직원 50여명은 광영동 자매마을을 방문해 페인트 도색 작업을 통해 녹슨고 낡은 대문을 신뜻하게 탈바꿈 시키는 등 지역민과 상생의 끈을 이어 나갔다. (사진) 옥곡면 광양시 노인 전문 요양원을 방문한 행정지원부 직원 30여명도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하 행사를 열었다. 직원들은 청소를 마친 뒤 정성스레 마련한 선물과 다과 음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한편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는 서영서(74·태인동 2구), 박광심(53·골약동)씨가 선정돼 배수관 매설, 내부 도배, 전기설비 교체 및 수리 작업이 마무리 됐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 현판 뜻 알기 쉽도록

#### 영암군, 설명문 부착

영암군이 군내 정자와 누각 현판의 설명문을 부착했다.

영암군은 최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내 대표적 관광지인 왕인박사 유적지와 도기문화센터, 마한문화공원 등 건축물 24개소 현판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 쓴 한글 설명문을 부착했다.

군은 또 정자 4곳의 목재 부식 방지 작업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암=김한범기자 hnkim@

## '5만 재경 향우' 찾아라

### 장성군, 쌀 판매촉진 위해 대대적 운동

장성군이 쌀 판매 촉진을 위해 '5만 재경향우 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각 실·과 서무담당자와 읍·면 산업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쌀 판매방안 회의를 갖고 '5만 재경향우'들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우수 장성농 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평생 고객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장성군은 각 읍·면장을 중심으로 학교별 동창회 임원과 마을별 출향 가족, 호적부 등을 활용해 향우 찾기에 나섰다.

장성군은 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계획에 따라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에 15억 4천만 원을 들여 건조시설 2기, 저장시설 4기를 오는 10월에 완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삼계 유통센터 부지 내에 10억 원을 투입, 최첨단 친환경 쌀 가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공무원 600여 명과 농협 임직원 250여 명이 장성 쌀 판매사원으로 나서 쌀 5만여 포를 판매, 19억 3천여만 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장성=고재범기자 jbgo@

## 진도 겨울 대파 대체작목 육성 시범단지 친환경 참외 본격 출하

진도 지역 참외단지 시설 하우스에서 참외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이 단지는 진도군이 과일 생산되고 있는 겨울 대파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진도군은 올해 군 직영으로 부지 2만730㎡, 하우스 28동 규모의 시범농장을 조성, 최근 하루 1.4t 규모의 참외를 본격 출하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 진도 참외는 맛이 좋고 당도와 향이 우수

## 해남 우슬체육공원 준공 국제 규격 축구장·공도장 등 갖춰

국제 규격의 인조 축구장 등을 갖춘 해남 우슬체육공원이 최근 준공됐다.

우슬체육공원은 해남읍 해리 9만3천348㎡ 부지에 인조 축구장 3면과 공도장, 게이츠펠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 경기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췄다.

지난 2004년 10월 시작된 이 공사에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모두 120억 원이 투입됐다.

해남군은 체육공원 내에 길이 25m 8레인 규모의 수영장 시설 공사를 이달 중 착공, 내년 3월 끝낼 예정이다.

해남군은 진입도로 및 경기장 주변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주차장 확충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

/해남=박정목기자 jopark@